

기술 외친 JY, 3나노 생산 들어간다... 삼성 '초격차' 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만간 3나노 양산 공식 발표 경쟁사 대만 TSMC보다 빨라 반도체 미래 전략 수립 '착착'

삼성전자가 다시 초격차 준비를 본격화한다. 선단 공정 조기 도입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까지 서둘러 준비하려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파운드리 3나노 게이트올 아라운드(GAA) 공정 양산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나노 공정 양산은 파운드리 업계에서 처음이다. 경쟁사인 TSMC도 3나노 공정을 빨라야 올해 말로 계획 중으로, GAA 적용은 2나노 공정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에서 기술 1위로 도약하는 셈이다.

수율 논란이 있긴 하지만, 비단 삼성전자 문제만은 아니다. EUV 공정 난이도가 워낙 높은 탓에 삼성전자 뿐 아니라 TSMC 등 경쟁사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양산 계획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imec 루크 반 덴 호브 CEO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에서도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4나노 D램 양산에 이어 12.8나노 기술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당초 차세대 제품으로 12.3나노 D램을 준비했던 만큼, 12.8나노 D램 양산에서는 다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서 벨기에 imec을 방문하면서 10년 이후를 미

리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 imec은 미래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30년 이후 반도체 기술까지 전망한 바 있다.

imec은 반도체 업계가 2024년 2나노 양산을 시작해, 2028년 1나노와 2030년

7공스트롬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EUV 장비도 1.4나노부터는 하이NA로 업그레이드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후공정 개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이후에는 실리콘을 대체할 새로운 소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미래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이 imec을 방문해 여러 기술을 둘러보고 귀국하면서 '기술'을 강조한 데 이어, 직후 열린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반도체 연구소 인사 개편과 파운드리 사업부 부서 개편 등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지난 출장에서 네덜란드 ASML을 방문해 EUV뿐 아니라 하이NA 등 최신 장비 확보를 논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텔과 TSMC가 2025년 전후로 하이NA EUV 확보를 공식화한 상황, 삼성전자도 확보 노력을 본

격화한 것. 미래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차세대 메모리로 꼽히는 M램은 임베디드 방식으로 상용화에 성공하고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중으로, D램을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집적도를 높이는 3D D램도 개발 중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전력 공급 방식인 '파워비아'와 같은 기술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새로운 소재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는 종합기술원 뿐 아니라 삼성미래기술 육성사업을 통해 2차원 신소재인 그래핀과 관련한 연구를 상당 수준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수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다른 반도체 업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미세공정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을 먼저 도입한다면 초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구광모 LG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경기도 평택시 LG 디지털 파크 내 LG전자 HE연구소를 방문한 모습. /LG

구광모, 계열사 사장단 소집 LG, 글로벌 위기 해법 모색

〈LG 대표〉

'고객 가치 강화' 주제로 사장단 회의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현안 논의

취임 5년차를 앞둔 구광모 LG 대표가 글로벌 위기 해법 모색에 나섰다.

23일 세계에 따르면 LG는 이날 서울 LG트윈타워에서 구광모 대표 주재로 사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정기적 사장단 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고객 가치 강화'를 주제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전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에 열려왔던 데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책 수립에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상반기 전략보고회 직후에 이뤄지면서 최근 정세의 심각함을 짐작케했다.

LG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은 지난 전략보고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와 채용 계획, 그리고 경영 전략을 구 대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를 시작으로 LG디스플레이

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구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구 회장은 각 계열사가 마련한 분야별 전략 방안을 경영진들과 논의하고 중장기 투자와 채용도 계획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장단 회의는 '고객 가치 강화'를 주제로 열렸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경기 침체, 고환율과 인플레이션 등 여러 현안과 위기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구 대표는 사장단 회의에서 5년간 106조원 투자와 1만여명 채용 방침도 계획대로 실행하라고 독려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최근 글로벌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각 그룹사들은 비상 경영 체제를 본격화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직후 전자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가졌으며, SK그룹도 확대경영회의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현대차그룹도 다음달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를 통해 전략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어디든 떠날 그날을 위해,
마일리지 두둑하게 쌓아두세요!

KB국민스카이패스티타늄카드
 국내외 1천원당 1마일 기본적립
 해외/면세점 1천원당 1마일 추가적립 (총 2마일)

• 연회비: 국내 해외겸용 4만 5천원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연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2-C2b-01293호(2022.02.25~2023.02.24)

• 연체이자율: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연회비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 수수료를 적용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